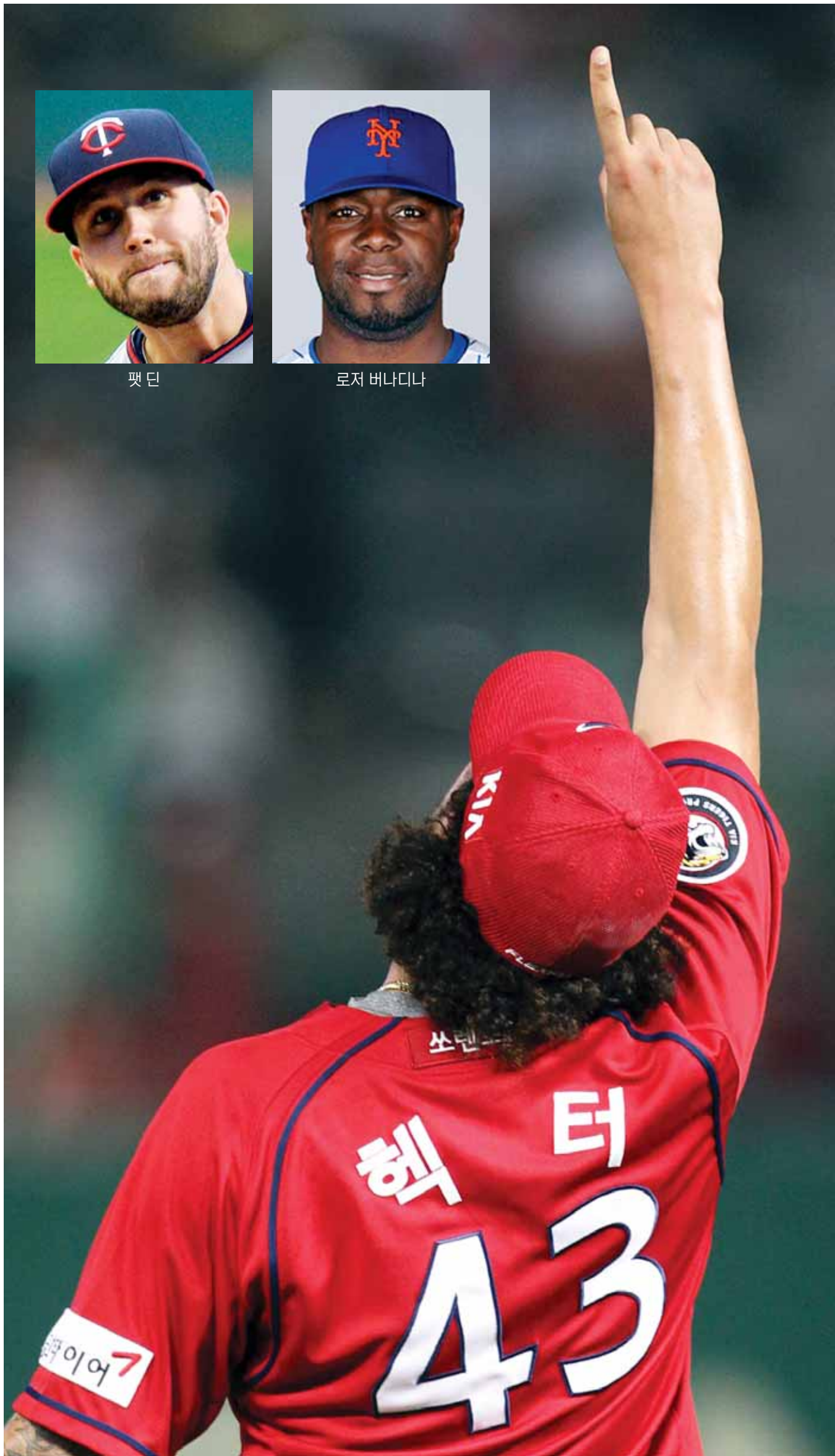


외인 삼각편대 구축 KIA ‘V11’ 날개 달았다



팻 딘

로저 버나디나

KIA 타이거즈가 올 시즌 200이닝 15승을 기록한 헥터 노에시와의 재계약에 성공하면서 새로 영입한 좌완 팻 딘, 외야수 로저 버나디나와 2017시즌 막강 외국인 선수 3인방을 구성하게 됐다.

〈KIA 타이거즈 제공〉

헥터 170만달러 재계약...올 시즌 리그 최다이닝·15승

좌완 팻 딘 이어 ML 출신 외야수 로저 버나디나 영입



‘호 랑 이 군 단 ’의 2017시즌을 이끌어갈 외국인 선수 3인방이 구성

됐다.

헥터 노에시(Hector Noesi·29)가 내년 시즌에도 KIA의 에이스로 활약을 한다. 외야수 로저 버나디나(Roger Bernadina·32)는 앞서 계약을 맺은 좌완 팻 딘(Pat Dean·28)과 함께 ‘신인 호랑이’로 한국무대에 도전장을 내민다.

KIA 타이거즈는 1일 외국인 투수 헥터 노에시와 올 시즌과 동일한 170만 달러에 재계약을 맺었다.

올 시즌 KIA 유니폼을 입고 KBO리그에 데뷔한 헥터는 31경기에 나와 리그 최다이닝(206.2이닝)을 소화하며 3.40의 평균자책점으로 15승(5패)을 기록했다. 헥터는 6이닝 3실점 이하를 뜻하는 퀄리티스타트 21회(리그 2위)를 기록했고, 퀄리티스타트 플러스(6이닝 이상 2자책점 이하 또는 7이닝 이상 3자책점)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14회를 장식하면서 KIA의 에이스로 자리했다.

안정적이면서도 강렬한 활약으로 5년만의 가을전치를 이끈 헥터는 LG 트윈스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선발로 나서 7이닝 5피안타 1볼넷 3탈삼진 2실점(1자책)의 호투로 4-2 승리를 이끌며, 1차전

MVP에 선정되기도 했었다.

헥터는 “내년에도 KIA 동료들과 함께 땀 수 있어 기쁘다. 내년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것”이라고 재계약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KIA는 외야수 로저 버나디나(좌투좌타)와도 총액 85만 달러에 계약을 맺었다.

네덜란드령 퀴라소 출신인 버나디나는 신장 189cm 체중 92kg의 체격을 지니고 있으며 메이저리그에서 7시즌, 마이너리그에서 13시즌 동안 뛰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548경기에 나와 312안타(28홈런) 121타점 159득점 59도루 타율 0.236를 기록했으며, 마이너리그에서는 1061경기에서 1000안타(80홈런) 453타점 563득점 244도루 타율 0.270을 기록했다.

워싱턴 내셔널스 필라델피아 필리스, 신시내티 레즈, LA다저스 등 메이저리그 팀에서 뛰 버나디나는 올 시즌에는 뉴욕 메츠 산하 트리플A팀인 라스베이거스 51s에서 114경기에 출전해 0.292의 타율과 OPS 0.841를 기록했다.

버나디나는 배트 스피드가 빠르고, 기동력을 갖춘 외야수로 언급된다. 또 타구 판단이 탁월하고 빠른 주력을 바탕으로 수비 범위가 넓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지완의 잔류와 ‘FA 대어’ 최형우에 이어 외국인 외야수 버나디나가 합류하면서 KIA의 외야는 내년 시즌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팬 참여 KBO 윈터미팅 14~15일 서울서

8일 오후 2시부터 참가 신청

2016시즌을 결산하고 새 시즌을 준비하는 ‘2016 KBO 윈터미팅’이 14·15일 더케이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KBO 윈터미팅은 리그 실무진이 한 자리에 모여 시즌을 결산하고 리그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2001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14일에는 국내의 전문가 및 야구팬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리그 발전포럼이 열린다. 15일에는 KBO와 10개 구단의 프런트가 각 부서별로 세부 안건을 두고 논의를 한다.

발전 포럼은 오전 전체 강연과 오후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오전에는 미국 스포츠마케팅학계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미국 사우스플로리다 대학교의 윌리엄 서튼 교수를 초빙해 각 이해관계자의 니즈(needs) 분석과 팬 중심이 되어야 하는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을 듣는다. 윌리엄 서튼 교수는 미국 프로농구(NBA)사무국에서 구단 마케팅·경영지원 담당 부사장을 지냈으며, 전미 스포츠마케팅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리그 성장을 위한 3가

지의 핵심 주제(스포츠산업진흥법 및 조례하의 지원정책·도시와 산업으로서의 프로 경기장·KBO 리그의 지속 가능성 담보)를 바탕으로, 국내 스포츠 전문가 3인(한국스포츠개발원 김대희 박사, 경희대학교 김도균 교수, 단국대학교 전용배 교수)의 소강연과 패널 토의가 이뤄진다.

오후에는 타고투저 현상, 티켓시장 확대, 퓨처스리그 지역 연고 정착, KBO 리그의 중국 진출 전략, 유소년선수의 부상 방지와 심리분석, 비주류 스토리텔링을 통한 KBO 리그 홍보전략 등 총 6개의 공개 세션이 열린다.

찰리 신 미국프로축구 MLS 선임이사를 비롯해 강래혁 변호사(법무법인 해평), 김수안 박사(서울대 심리학과), 이종열 위원(SBS Sports 해설위원·KBO 육성위원), 민훈기 위원(SPOTV 해설위원·KBO 상벌위원), 임승길 교수(동신대·KBO육성위원회 자문위원) 등이 발제자와 패널로 참여한다.

포럼 참여를 원하는 야구팬은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KBO 홈페이지(www.koreabaseball.com) 팝업창에서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김여울기자 wool@

선수에서 단장까지

LG 신임단장에 송구홍

LG 트윈스의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인 송구홍(48·사진)이 코치, 운영팀장, 운영총괄을 거쳐 단장직까지 올랐다.

LG는 1일 백승길 단장을 대신해 송구홍 운영총괄을 신임 단장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LG 구단 역대 최초의 선수 출신 단장이다.

송 신임 단장은 선린상고와 건국대를 졸업한 뒤 1991년 LG에 입단해 해태(1998년)와 쌍방울(1999년)을 거쳐 2000년 다시 친정팀 LG로 복귀했다.

프로 통산 타율은 0.272에 42홈런, 235타점을 기록했다. 특히 프로 데뷔 2년 차인 1992년에는 프로 통산 5번째로 20홈런-20도루를 달성했다. 1993년에는 팀의 유일한 3할 타자이면서 LG ‘신바람 야구’의 선봉장이었다.

송 신임 단장은 현역 시절 유니폼이 해질 정도로 몸을 내던지는 수비와 베이스러닝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현역 은퇴 이후에는 LG에서 코치, 운영팀장, 운영총괄을 역임했다.

그는 “선수 출신 단장인 만큼 선수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명문 구단이 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KIA, 챔스필드 F&B

운영 사업자 공개입찰

KIA 타이거즈가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F&B(Food & Beverage·식음료) 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을 한다.

이번 입찰은 KIA가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내 F&B 시설 운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쟁입찰(입찰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관내에 주소로 둔 개인 또는 법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챔피언스 필드 F&B 시설물을 낙찰받은 대행업체는 사용 허가일로부터 3년간 F&B 시설 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입찰 예정 가격(최저 입찰가)은 7억원(1년 사용료, 부가세 별도)이다.

KIA는 오는 6일 오후 2시 F&B 시설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입찰공고는 구단 홈페이지(http://www.tiger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찰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입찰서류 접수는 내달 14일 오후 6시(당일 우편접수 분까지 한함)까지 마감됨으로 하면 된다. (문의 마케팅팀 김찬 대리 070-7686-8043)

KIA는 사업제안서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운영계획, 사업수행 능력, 입찰금액 평가를 한 뒤 최고점득자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신지애-고진영 ‘더퀸즈’ 첫날 일본 상대

4개국 투어 대항전 오늘 개막

신지애(스리본드)와 고진영(넵스)이 4개국 투어 대항전인 더퀸즈 골프대회 첫날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선수들을 상대한다.

대회조직위원회가 1일 발표한 대회 첫날 대진표를 보면 신지애와 고진영은 JLPGA 투어의 오야마 시호, 스즈키 아이(이상 일본)와 맞붙게 됐다. 이 대회는 한국과 일본, 호주, 유럽 여자골프투어의 4대 투어 대항전으로 2일부터 사흘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다.

첫날 포션, 둘째날 포블 방식으로 대회가 진행되고 마지막 날은 1대1 매치플레이로 최종 순위를 정한다. 두 선수가 공 하나를 번갈아 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첫날 경기에서는 신지애-고진영 조 외에 장수

연(롯데)과 김민선(CJ오쇼핑) 조가 호주의 휘트니 힐리어, 레이철 헤더링턴과 맞붙는다.

또 배선우(삼천리), 정희원(파인테크닉스)은 유럽 투어의 누리아 이투리오스(스페인), 이사벨 보이누(프랑스)를 상대한다. 김해림(롯데)과 이승현(NH투자증권)은 호주 교포인 오수현, 세라 제인 스미스와 맞대결을 펼친다.

주장 신지애는 “투어 대항전이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대회에 임하겠다”며 “선수들 분위기도 좋고 단합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어렵게 놓친 우승컵을 가져오겠다”고 다짐했다.

2라운드는 두 선수가 각자의 공으로 경기해 좋은 점수를 그 팀의 성적으로 삼는 포블 방식으로 진행되며 1, 2라운드 합산 점수 상위 1, 2위가 대회 마지막 날인 4일 결승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1일 일본 아이치현 미요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더퀸즈’ 공식 기자회견을 마치고 ALPG 레이첼 헤링턴(왼쪽부터), KJPGA 신지애, LET 트리시 존슨, JLPGA 류 리츠코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 LPGA 35개 대회 상금 790억

1월 26일 바하마서 개막전

US오픈 500만달러 ‘최대’

2017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일정이 확정됐다.

LPGA 투어는 1일(한국시간) “2017 시즌에는 35개 대회를 치르게 되며 총상금 액수는 6735만 달러(약 790억원)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2016시즌에는 총 34개 대회에 상금은 6310만 달러가 걸려 있었다. LPGA 투어 시즌 총상금 액수는 2017시즌이 역대 최대 규모다. 시즌 개막전은 1월 26일부터 바하마에서 열리는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이다.

5대 메이저 대회는 3월 ANA 인스퍼레이션을 시작으로 6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7월 US오픈, 8월 브리

티지오픈, 9월 에비앙 챔피언십으로 이어진다.

이 가운데 US오픈은 총상금 액수를 올해 450만 달러에서 2017년 500만 달러로 높여 역대 LPGA 투어 대회 사상 최대 규모의 상금 액수를 기록하게 됐다.

2017시즌 US오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소유한 뉴저지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다. 11월에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로 열렸던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은 매치플레이 방식으로 변경해 5월로 개최 시기를 앞당겼다.

국내에서 열리는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은 10월 둘째 주 인천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펼쳐진다. 시즌 최종전은 11월 19일에 끝나는 CME그룹 투어챔피언십이다.

/연합뉴스